



배순훈 / 본회 비상근 부회장  
대우전자(주) 사장

## 우리 기업이 살 길

올해의 가전산업은 수출부진과 국내시장 개방이라는 2중의 난제를 안고 어려움을 겪었다. 수출부문에서는 주요 수출대상국이던 북미와 유럽지역은 블록화 경향과 함께 엔화 덩핑판정과 같은 수입규제가 한층 강화되었고 한때 수출 유망지역으로 각광받았던 동구권 시장도 한계를 드러내 부진을 면치 못했다. 다만 중남미 시장이 다소 활기를 띠었다.

내수시장도 과도한 무역수지 적자와 더불어 과소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수요가 냉각되었고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소비자들의 기대심리까지 겹쳐 판매 증가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수입상품에 대한 일반 언론에서 지적하는 심각성은 모호한 점도 없지 않으나 그동안 특수분야에서는 수입상품이 시장을 주도하는 등 국내 소비성향을 변화시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국산 상품이 국제 경쟁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지 않느냐하는 우려에 있다. 특히 전자제품은 우리 산업의 구

조상 수출을 많이 해야하는데 수출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위치는 앞에서는 선진국들의 기술장벽에 밀리고 뒤로는 개발도상국들의 저가제품에 쫓기고 있는 입장이다. 더구나 일본 기술과 저임금을 바탕으로한 동남아산 일본 제품에 우리의 주력 시장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독자적인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사실 이제까지 국내 가전업체의 기술개발이라는 것이 대부분 설계에서 생산까지 일본상품을 모방하는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데다 국내의 시장에서 한국상품의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하지 못했다는데도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국적 상품개발은 한국적인 내수시장이 확립되어 있어야만 가능한데 국내에서는 독창적이고 기본기능이 충실한 제품을 선호하기 보다는 새로운 사치기능이 들어간 유행성이 강한 상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 것도 공급측면에서 일본 의존도를 높이는 이유로 작용했다.

품질고급화와 신기술 개발만

이 우리 전자산업의 살 길이라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지만 기술개발도 이제는 더이상 선진국 기술을 뒤쫓아만 가서는 안될 것이다. 막연한 첨단기술의 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팔리는 기술이라야만 한다. 독창적인 기술개발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계속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세계에 없는 상품을 개발하면 그 분야에서는 그 업체가 바로 선발이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것이다.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 경제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과소비 풍조가 자제되고 일하는 분위기가 되살아 나는 듯하여 다행스럽다. 근로자, 기업인은 물론 정부, 학계 등 모든 분야에서 다시 한번 해보자는 의욕과 함께 한 방향으로 힘을 모은다면 우리도 머지않은 시간안에 세계 최고 품질의 일등상품 개발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올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설계하는 이 시점에서의 바람이다.